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7장. 정치적 자유 (2): 네트워크 공론장의 창발

네트워크 정보경제와 매스 미디어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요소들은 네트워크 아키텍처(network architecture)와 발언자(speaker)가 되기 위한 비용이다.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등장은 허브-앤-스포크 아키텍처(hub-and-spoke architecture)가 분산된 아키텍처(distributed architecture)로 변환됨을 의미한다. 허브-앤-스포크 아키텍처는 단일방향의 링크들이 중앙축을 중심으로 바퀴살처럼 방사형으로 매스 미디어의 종점들(end points)을 향해서 뻗어나간 형태를 보인다. 반면에 분산된 아키텍처는 네트워크 정보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들을 다방향으로 연결한다. 네트워크 정보경제는 관련 영역들과 경계들을 넘나들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에 사실상의 장벽으로 작용하던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실질적 차원에서 제거해 버렸다. 네트워크 정보경제 특성들은 개인들의 역량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매스 미디어의 수동적 독자, 청취자, 시청자들과는 달리 네트워크 정보환경에서는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활동하며 공론장의 적극적 참여자가 될 수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에서의 공론장 참여는 해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권위주의 국가들이 네트워크화를 도모하면서 공론장에 대한 통제까지 유지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중국이 권위주의적 통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2010년대 중반이 지난 오늘날 통제는 지극히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몇몇 권위주의 정권들에서만 공론장 통제가 느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장소적 제한없이 어디에서든 정보생산이 가능한 개인적 역량은 보편적 수용(universal intake)에 근접하는 잠재력을 창출한다. 이 역량의 확장은 상업적 매스 미디어 환경에 터잡은 공론장에서 생겨나는 두드러진 구조적 변화의 전조(前兆)를 의미한다. 공론장의 변화들은 미디어가 수행하는 필터링에 도전할 기반을 제공하며, 또한 7장 후반부에서 살펴볼 인터넷이 초래하는 민주화 효과(democratizing effect)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근거가 된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공론장의 변화들은 현실적 차원의 변화들을 실현시키는 풀뿌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몇명의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이메일 주소록의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비용,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은 극적으로 감소했다. 슬래쉬닷(Slashdot)같은 사이트를 통해 수 많은 사람들과 소통적 상호작용을 유지할 가능성도 증가했다.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규모의 정치적 담론에 참여하여 발언하는 비용은 매스 미디어가 매개하는 환경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해서 수만배 정도 감소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격감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종전보다 급증한 발언자들이 공론장에 쉽게 진입하여 공개적 커뮤니케이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정보경제가 가져오는 이런 변화는 규모 면에서 괄목할 만하고 질적으로도 의미로운 변화이다. 질적 변화의 핵심은 바로 개인들이 단순히 청취자와 투표자에 머물지 않고 잠재적 발언자(potential speaker)가 되는 경험이다. 이 경험적 가치는 개인들의 자아인식(self-perception), 그리고 개인들이 소속된 사회가 참여문화를 수용하는가와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공론장에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쉽사리 주고받게 된다면 개인들은 더 이상 수동적 독자나 청취자에 머무르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잠재적 발언자로 자리매김한다. 이런 상황의 변화는 무언가를 듣고 귀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어 놓는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을 관찰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난다. 일상의 사건들을 단순히 사적인 관찰이 아니라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잠재적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미디어의 상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대적 권력에 영향을 미친다. 관찰들과 견해들을 받아들이는 미디어의 수용 구조에 영향을 주고, 공적 담론을 대표하는 이슈들과 논평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에 의해 공적 이슈들의 내용을 거르고 필터링하는 고착화된 미디어의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특정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들을 뚜렷하게 정립하고 종합화하는 방식들에도 영향을 준다. 매스 미디어는 사회에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의견들과 입장들을 취합하여 매체가 원하는 편집방향에 따라 재편집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론은 왜곡되고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다수의 개인들이 스스로 의견과 행동을 직접 조직화하여 추동력을 형성하고 그 가시적 힘을 바탕으로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을 직접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Reno v. ACLU* 판결문 가운데 다수 의견은 인터넷이 가져오는 민주화 효과를 설명하는 사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판결은 1990년대 중반의 관점에서 이해한 인터넷의 민주화 효과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독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웹(Web)은 색인화된 출판물들을 포함한 수 백만권의 책들을 읽을 수 있는 방대한 도서관(library)이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확장하는 몰(mall)에 견줄 수 있다. 발행인의 관점에서는 웹은 수 백만명의 독자들, 시청자들, 연구자들, 구매자들을 포함한 전 세계 청중들(audience)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방대한 플랫폼을 구성한다. 그 어떤 사람과 단체든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발행(publish)”할 수 있다. 이런 발행인들(Publishers)은 정부산하 기관들, 교육 기관들, 상업적 주체들, 옹호단체들(advocacy groups), 개인들을 포함한다.

대화방(chat rooms)을 사용하는 누구든지 전화선을 통해 연단에서 외치는 것보다 멀리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가진 행정관리(town crier)가 될 수 있다.<sup>1</sup> 마찬가지로 웹페이지, 메일 익스플로더(mail exploder)<sup>2</sup>, 뉴스그룹을 사용하는 개인은 시사 평론가(pamphleteer)가 될 수 있다. 지방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인터넷 콘텐츠는 인간의 생각만큼이나 다양하다.”<sup>3</sup>

여기에 인용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문에는 새로운 매체 웹(Web)과 20세기를 지배했던 매스 미디어라는 매체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특기할 만한 차이점이 적혀 있다. 두 가지 뚜렷한 효과를 주목할만 하다. 첫 번째 효과는— 판결문이 “독자들의 관점(the readers’ perspective)”을 언급했듯이— 누구든, 어디에서든 인간 표현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표출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이 점은 매스 미디어가 매개하는 환경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했다. 두 번째 효과는 더 근본적이다. 기존의 매스 미디어 환경에서의 전통적 발언자들에 해당하는 정부, 영리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개인들, 교육 기관들, NGO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발행인이 될 수 있다.

1990년대가 지나자 인터넷이 민주화 효과(democratizing effects)를 가져온다는 초창기 주장을 반박하는 비평들이 등장했다. 수 많은 비판론 가운데 하나는 인터넷이 초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무질서를 뜻하는 바벨 반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관점은 인터넷이 정보과적을 초래하므로 담론의 파편화, 양극화, 정치 공동체의 상실을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자기모순적 서술방식을 보여준 어떤 비평은 인터넷이 사실상

<sup>1</sup>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영국에서 행정관원(town crier)은 법원에 소속된 관리로서 큰 벨을 들고다니면서 포고문(pronouncements)을 길거리에서 외치거나 집집마다 방문해서 알리고 다녔다(윤건이)

<sup>2</sup> 메일 익스플로더(mail exploder)는 메일 리플렉터(mail reflector)라고도 불리는 프로그램이다. 이메일 주소, 이메일 서비스, 이메일 그룹핑이 손쉽게 가능하며 한번만 이메일을 송신해도 다수의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윤건이)

<sup>3</sup> *Reno v. ACLU*, 521 U.S. 844, 852–853, and 896–897 (1997).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집중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중략.....)

###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도구들

(.....중략.....)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은 네트워크 공론장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이 작동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개인들은 정적인 웹페이지들, 블로그들, 다양한 소셜 소프트웨어 매개 플랫폼(social-software-mediated platforms)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소셜 소프트웨어 매개 플랫폼은 3장에서 설명한 슬래시닷(Slashdot)처럼 엄청난 규모의 커뮤니케이션이 오가게 만든다. 정적인 웹페이지들(static webpages)은 개인적 이용이 가능한 “방송(broadcast)” 매체로 볼 수 있다. 모든 개인들, 단체들은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텍스트, 음향, 이미지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비록 소규모 NGO들이라도 세계적인 존재감과 가시성을 가질 수 있다. 정적인 웹페이지들은 광범위한 검색가능 정보, 관찰들, 의견들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누구나 읽기, 쓰기가 가능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쟁점에 대한 모든 주장들을 관련된 사람들이 듣거나 귀 기울인다는 뜻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의 목록화와 정보 흐름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자.

웹사이트는 인터넷 기반 도구이자 정치적 공론장을 위한 매체이다. 웹사이트가 가진 이런 특성을 확장하는 문화적 실행은 웹로그(web logs) 또는 블로그(blogs)다. 블로그는 웹사이트의 주변부에서 부상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으로 웹 이용을 확장시킨다. 전문적으로 설명하자면, 블로그는 웹에 “글을 쓰도록(writable)” 해주는 광범위한 혁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블로그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웹페이지를 손쉽게 수정하게 해준다. 블로그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만 있다면 그 어디에서든 수정이 가능하고, 웹페이지에 쓴 글은 블로그에 접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즉시 읽을 수 있다. 이런 기술적 변화는 웹사이트 유지와 관련된 1990년대의 문화적 실행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 변화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술적 변화는 웹페이지를 짧거나 긴 간격을 두고 게시글들이 추가되는 저널 스타일(journal-style)로 진화시켰다. 이런 실행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 발전하였고 블로그의 게시물들은 대부분 시간 순으로 보관되었다. 이는 블로그가 수 많은 이용자들에게 개인적 용도로 쓰이거나 소수의 친구들과 사용하면서 매일같이 업데이트되는 개인적 저널(personal journal)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예전의 웹페이지 문화는 느리게만 진척되는 경향을 보였고, 보도(reportage)라기 보다는 에세이에 가까웠다. 그러나 블로그에는 개인들이 저널리즘 주기(journalism time)에 맞춰 웹페이지에 매 시간, 매일, 매주 간격으로 글을 올린다. 공론장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블로그의 특성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늘날 개인들은 필수적인 정적인 웹페이지 유지를 위해서 블로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에세이나 콘텐츠를 이따금씩 올려서 추가한다. 블로그 테크놀로지는 웹사이트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웹사이트는 매일 업데이트 된다. 공론장 기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느냐는 기술적 플랫폼에 달려있지 않고 게시되는 콘텐츠(content)와 반복적인 포스팅(cadence)에 달려있다. 이 두가지는 이용의 실행(the use practice)에 해당한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글쓰기가 가능한 웹 기능(writable Web)의 도입과 블로그의 보편화가 가져온 두 번째 결정적 혁신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독자들/이용자들(reader/users)도 블로그에 얼마든지 글을 써서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블로그 운영자는 블로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게시글들을 편집하거나 조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운영자는 일부 독자들에게만 댓글을 쓰도록 허용하거나, 아무도 댓글을 쓰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독자들/이용자들이 블로그에 글을 쓸 수 있게 되자 더 많은 사람이 완성된 문장을 쓰고 더 널리 메시지를 퍼뜨릴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의 최종 결과물은 완성재(finished goods)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 대화(weighted conversation)이다. 블로그 게시물에 댓글달기 뿐만 아니라 댓글에 달리는 댓글도 일반적 실행으로 정착되었으므로 대화(conversation)에 해당한다. 블로거들은 댓글 영역(comment section)에 반응을 올리거나, 블로그의 주요 영역(primary section)에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블로그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대화는 치우쳐진 양상을 보인다. 블로그가 운영자에게 부여하는 문화, 그리고 기술적 행동 유도성(technical affordances) 덕분에 운영자는 누가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량을 다른 식으로 사용하는 블로그들도 있다. 일부 운영자들은 게시판을 이용하여 더 넓은 의견과 정보를 수용하고 토론하게 만들지만 어떤 운영자들은 블로그를 더 엄격하게 편집하려고 든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블로그들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나 정보흐름의 구조는 편향된 대화(weighted conversation)를 부채질한다. 블로그에서 진행되는 대화는 한 명이나 한 집단의 주요 기고자들/저자들(contributors/authors)이 대규모의 2차적 기고자들과 함께 무제한의 독자들을 상대로 소통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글쓰기가 가능한 웹 기능은 일련의 또 다른 실행들을 포함한다. 이미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웹을 통해 대규모(larger-scale) 협력적 콘텐츠 생산(collaborative-content) 시스템이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다. 블로그를 다룬 여러 다른 문헌들은 이런 뚜렷한 실행들을 설명하고 있다. 두 가지 특징들이 슬래쉬닷(Slashdot)이나 위키피디아(Wikipedia) 등의 사이트들을 블로그와 구분짓는다. 첫째, 이 사이트들은 한 명이나 소수의 발언자들 위주의 대화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다수 참여자들이 발언하는 상황을 예상하고 제작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이들 사이트들은 블로그들처럼 개인들이나 소수 집단이 대화에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으며, 본질적으로 집단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자칫 집단 커뮤니케이션이 무질서로 악화되지 않도록 상호평가, 게시글 권한의 구조화, 평판 시스템 등 소셜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해결책을 갖추고 있다. 둘째, 위키(Wikis) 소프트웨어로 구축된 사이트들은 공통 텍스트(common text)를 토대로 운영되는 대화형 플랫폼(conversation platform)이다. 입장들과 의견들의 종합화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위키의 텍스트는 협력적으로 저술(collaborative authorship)된다. 따라서 참여자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긴밀하고 끈끈하다. 참여자들의 관점들은 서로 “달라붙어” 있으며, 최종 의견으로 선택되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난 후에야 서로의 의견을 수용한다. 이런 협력적 과정을 거친 집단적 산출물(collective output)은— 현저히 주목받는 의견이나 논평— 경쟁적 관점들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대화에 비해 쉽게 식별 가능하다.

웹 기반 도구들의—정적 도구들, 동적 도구들, 개인적 협력 도구들—공통적 특성은 링크를 걸어주기(linking), 인용하기(quotation), 보여주기(presentation)이다. 이 특성들은 정보에 대한 참조와 조회를 손쉽게 만들어 주는 하이퍼텍스트 생성언어(HTML)의 핵심을 이룬다. 정보와 자료들을 보관하기 원하는 사람은 보관이 가능한 참조자료를 가진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은 철저히 분산적인 네트워크의 핵심을 이룬다. 이런 편리한 도구들이 제공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웹의 문화적 실행이 출현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웹페이지나 게시물에 영감을 받든지, 의견에 반대하든지 그 글의 위치를 링크하여 참조할 정보를 표시한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YOCHAI BENKLER

##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다. 링크를 통해 독자들의 웹페이지를 전환시켜 해당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웹의 문화는 매스 미디어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매스 미디어 환경에서는 5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수 백만명에게 보내는 일은 대단히 어려웠으며 비용도 무척이나 많이 들었다. 매스 미디어는 독자들에게 보고서와 논평(review)을 함께 덧붙여 제공하지만 독자들이 실제로 접하고 읽는 것은 전문가들의 논평이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에서는 평론가를 믿는 문화가 생겨날 뿐이었다. 하지만 웹에서는 원본 자료와 참조 정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링크 걸기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 특성으로 자리잡았다. 이 문화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직접 확인하세요(see for yourself)"라는 메시지이다. 웹 이용자들이 자신의 관찰 결과를 신뢰하려면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는 발언자의 평판, 판단능력의 근거가 되는 출처를 읽기, 참조한 주장과 출처가 밝혀졌을 때 그 내용을 반박할 만한 출처와 수단을 가진 집단들의 존재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 반박용 정보나 자료를 제시하는 집단은 리뷰어나 발언자와 무관해야 한다. 링크 걸어주기와 "직접 확인하세요"는 한층 참여적 형태의 인정(accreditation) 모델이다. 매스 미디어를 대상으로 삼는 전형적 신뢰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